道,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주력

4월부터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사업 추진

총 5곳 선정 완료… 사업단별 30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령화사회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소규모 매장 등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고, 초기사업비 지원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등 사업단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신청·접수를 받아 1차 심사를 통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전주시니어클럽 바로결애(음식점), 익산시니어클럽 간편COOK(휴게음식점), 정읍시니어클럽 슈퍼맨 수제 누룽지(즉석가공), 완주시니어클럽 이편한 세탁서비스(세탁서비스), 임실시니어클럽 행복맛김(즉석가공) 등 도내 총 5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개 사업단에 소상공인희망센터,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컨설팅과 현장점검 등 사업 초기부터 관리를 실시해 사업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도 사업을 지원받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생산품을 판매하는 '서원상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은 서신동 도내기쌈체육센터에 커피전문점인 '카페 우정'을 열었다.

같은 시기에 지원받은 군산시니어클럽은 보리비빔밥 등을 판매하는 '군산꽁보리', 장수시니어클럽은 제과점 '장수베이커리',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지역에서 생산한 콩을 활용한 '할매콩두부'를 개소해 어르신의 손맛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김석면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인구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유입으로 안정된 고용과 적절한 급여를 전제로 한 좋은 일자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를 확대해 지역과 상생하고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경찰청, 폭력피해 지원시설,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전주중앙시장 인근에서 폭력예방 연합 캠페인을 가졌다.

전북자치도, 폭력예방 연합 캠페인

경찰청, 시설·상담소 등 유관기관 4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경찰청, 폭력피해 지원시설,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전주중앙시장 인근에서 폭력예방 연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와 전북경찰청(덕진경찰서, 완산경찰서),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북해바라기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 등 폭력피해 지원시설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여성폭력 관련 게시물 전시, 폭력예방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사회적 약자 폭력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중앙시장 내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폭력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으며, 위험에 처한 폭력피해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리는 안내문도 배포해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성폭력 노출시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쉼터 및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의료기관·법률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공동 대응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기회가 적은 도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는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등에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창업꿈나무 지원 본격 시작

원광대, 운영기관 선정… 시제품 제작부터 시장성 검증까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내 창업꿈나무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원광대학교를 20일 최종 선정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업꿈나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전북자치도만의 사업으로 창업에 관심있는 도내 고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부터 시장성 검증까지 창업 전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고등학생 8팀, 대학 11팀을 지원해 4개 팀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특허출원 7건과 각종 창업경진대회에서 14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

특히 원광대 한의학과 창업팀 '꿀밤'은 수면 유도 향주머니 아이템으로 익산시 창업경진대회 창업인재상, 한국한의약진흥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학생 창업의 가능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원광대학교는 2018년 창업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활동, 지식재산권출원 등을 독려하고 있으며, 중기부 재도전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이기도 해 창업 지원사업 운영의 노련함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국내외 창업 관련 박람회와 우수 창업기업 현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진취적인 청년창업가 양성의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 특화교육, 1:1 전담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미래의 스타창업가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4월부터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 방문 홍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창업꿈나무 20팀을 모집한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창업에 관심있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미래 창업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4년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에 도내 고교,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제22회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하는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로 총 8개 분야별 공적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와,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표이다.

선정된 기업과 경제단체는 2,500만원의 경영개선보조금을 지원받고, 공로패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예우기간 5년 동안 전북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최고 5억 원까지 확대해 이차보전 3.0%로 지원받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및 경제 관련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군 및 경제 관련 기관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신청 기업들의 기본 자격요건 검수를 거친 후 도에 추천한다.

전북자치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6월 중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층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재훈 기자

미국 청소년 대사 전북 문화·역사 탐방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한지공예, 학생 간 교류, 템플스테이 등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전북에 방문하여 전북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전북 지역 학생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소속 미국 청소년 대사 24명을 대상으로 '2024년 미국 청소년 대사 전북 탐방 프로그램'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전주, 군산, 고창 일대에서 진행했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청소년 대사들은 캘리포니아, 몬타나, 뉴욕 각 3개 주에서 선발된 우수 청소년들로, 전주에서 한지 공예·비빔밥 체험과 한옥마을 투어, 군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고창 선운사에서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전북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지역 캐서린 코퍼스미스(17) 청소년 대사는 "2박 3일 동안 전북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또래 학생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 매우 뜻 깊었다"며, "특히, 한옥마을 경기전 해설과 선운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염주 만들기 체험은 미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린다 도바쉬 상임고문은 "매년 미국 청소년 대사들에게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혀 한·미 양국 문화의 간극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6·25 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한·미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1957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김재훈 기자

'코리아 소사이어티' 소속 미국 청소년 대사 24명이 전북에 방문했다.